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정세브리핑(2025.11.08)

작성자: 채민석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 불안정한 휴전의 지속

- 10월 10일 휴전이 발효된 이후, 하마스는 20명의 이스라엘 포로를 산 채로 풀어주고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28명 중 22명의 유해를 넘겨줌(11.6 알자지라)
- 2023년 10월 이후 최소 68,87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170,679명이 부상당함.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주도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총 1,139명이 사망하고 약 200명이 포로로 잡힘.(11.6 알자지라)
- 휴전 이후 가자지구에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공습으로 고통과 불안에 휩싸여 있음. 식량 부족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
- 1단계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226명 사망, 596명 부상(11.2 기준)하면서, 향후 휴전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포로 시신을 약속대로 주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하마스는 주검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파괴된 건물 잔해에 묻혀 있어, 중장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요청
- 여전히 라파흐 국경은 막혀있고, 구호품 반입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음(하루 145대꼴로 물자 트럭 반입, 이는 최소 필요량인 하루 600대의 24%에 불과한 수치)
- 휴전 이후 국경없는의사회·옥스팜 등 40개 국제구호기관의 구호물자 반입 요청 99건이 거부돼, 5천만달러(약 715 억원) 가량의 구호물자가 국경 근처에서 대기 중인 상황(11.2 한겨레)

○ 휴전 관련 논의

- 미국이 가자지구의 휴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안정화군(ISF)을 최소 2년 동안 배치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 초안을 완성. ISF가 이스라엘·이집트와 맞닿은 가자지구 국경을 보호하고, 민간인과 인도주의적 물자가 오가는 통로를 보호하며 ISF에 협력할 팔레스타인 경찰을 훈련하며, 하마스의 무장 해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 다만 하마스의 자발적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철군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ISF 배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임. 파병 문제?(11.4 경향신문)
-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마스와 파타를 포함한 8개 팔레스타인 파벌과 무장단체가 비공개 회의를 하고 과도행정기구 구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 이 과도행정기구를 트럼프가 인정할지는 미지수(11.3 경향신문)

○ 미국의 중동전략

- 트럼프는 중동에서의 미국의 이익 확보를 위해 이스라엘의 만행을 내버려두는 한편, 22개 아랍연맹국들과의 협정(아브라함 협정)을 추진하려고 애쓰고 있음. 이번 달 미국-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에서 사우디와 이스라엘 국교 정상화 논의 가능성(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2023년 가자전쟁 발발 이후 관련 논의를 중단했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는 불가역적 조처를 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는 없다고 한 상태)
- 미국 부통령, 대통령 특사,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전쟁부 장관, 트럼프 밝사위 등이 연달아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이스라엘의 폭격을 자제시키는 모양새를 취하는 한편, 휴전 협상 정착에 대해 논의
- 아브라함 협정: [이집트(1979), 요르단(1994).] UAE, 바레인(2020) / 팔레스타인 문제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아랍 국가들의 지원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미국의 중동전략(및 중러와의 경쟁)으로써 추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연대를 위해 양자의 공공의 적인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예멘 후티; 시아 벨트)의 위협에 대한 공동 안보 요구에 따라 진행('이스라엘·UAE 평화협정(아브라함 협정)의 합의', 2020.8.28, 외교안보 연구소)
-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이란 민병대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지난해 11월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정부군만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휴전 협정을 맺음), 미국은 무장해제를 하면 최대 100억 달러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며 헤즈볼라 설득에 나선다. 미국은 이스라엘 안보와 중동 안정 방안으로 이란과 그 대리세력인 헤즈볼라를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11.3 한겨레)
- 11.10 시리아 건국 이후 최초 대통령(알샤라) 미국 방문 예정(유엔 안보리는 제재 명단에서 알샤라 삭제 예정)

○ 한국 정부와 기업도 공범(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 '가자 집단학살: 집단 범죄' 보고서를 발표
- "가자지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집단학살은 영향력 있는 제3국들의 방조로 지속되는 집단적 범죄이며, 이들 국가는 이스라엘의 국제법 장기적·체계적 위반을 가능하게 했다"
- 보고서는 각 국가에 이스라엘과 모든 군사·무역·외교 관계를 중단하고,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등에 관련된 모든 정부·기업·개인을 처벌할 것을 요구.
- 한국은 이스라엘의 F-35 스텔스 전투기에 필요한 부속품을 공급한 19개국 중 한 국가라는 점을 지적받음

- 한국이 2016년 비준한 유엔 '무기 거래 조약'(ATT)에는 무기와 탄약, 부품 등이 집단살해, 반인도범죄, 민간인 공격 등에 사용될 것을 인지했다면 이전을 금지하도록 규정(제6조)하고 있다는 점도 짚음(10.30 한겨레)
- 이외에도 HD 현대가 소유한 두산인프라코어의 굴착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주민들의 가옥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한국석유공사가 소유한 다나 페트롤리엄이 팔레스타인 영해에서 가스를 채굴하는 식민지 착취에 동참

○ 국제적인 팔레스타인 연대운동

- 국제적인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2025년 5월과 9월 사이에 5개월 전에 비해 43% 증가. 무력 충돌 위치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ACLED)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133개 국가와 지역에서 최소 49,000건의 친팔레스타인 시위. 가장 많은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예멘(15,266)에서 기록되었고, 모로코(5,482), 미국(5,346), 터키(2,349), 이란(1,919), 파키스탄(1,539), 프랑스(1,397), 이탈리아(1,390), 스페인(1,102), 호주(967) 순(10.28 알자지라)

○ 팔레스타인 연대 한국 사회단체 입장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긴급행동): 지금의 휴전은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로움. 이스라엘은 휴전 합의를 존중해야 하며, 일시적인 휴전은 반드시 영구적인 휴전과 불법 점령 종식으로 이어져야 함. 가지지구 전역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이뤄져야하고 가지지구에 대한 불법 봉쇄는 해제되어야 함. 자결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평화구상' 이행 단계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참여와 주도적 역할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특히 이스라엘의 점령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마스 무장해제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음 (10.14 공동성명)
-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하마스의 즉결 처형(민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원받는 IS연계 갱단의 범죄행위), 시신인도 비협조(중장비와 인력 부족에 대한 이스라엘의 비협조)에 대한 이스라엘 주장 및 주류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 팔레스타인 포로에 대한 이스라엘 만행을 주류 언론은 보도하지 않음(10.18 정세보고). (참고: '하마스, 부역자 낙인찍어 가자 거리서 공개 처형', 10.16 조선일보)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 이번 휴전 합의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고립시킨 글로벌 연대 운동의 영향. 이스라엘은 전범 국가, 학살 국가답게 과거의 어떠한 휴전 합의도 지킨 적이 없고 이스라엘이 가지지구에서 전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큼. 따라서 글로벌 연대 운동은 더욱 굳건하게 지속돼야 함 (10.11 가지지구 휴전에 관한 성명)

○ 기타

-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고 비난. "인티파다를 세계화하라". 이스라엘의 존재권을 인정하지만, "인종이나 종교에 기초한 계층 체계로 존재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 뉴욕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났고 선거 캠페인 내내 유대교회당을 방문했으며 도시에서 증가하는 반유대주의를 해결하겠다고 약속

<트럼프의 라틴아메리카 위협과 제국주의 경쟁>

○ 베네수엘라 공격 임박

- '마약 밀수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트럼프 정부는 마두로 정부의 정권교체 및 유전 장악을 목표로 베네수엘라 근해에 강력한 항모인 제럴드 R 포드호를 카리브해로 이동중. 미 해군력의 20% 집결 예정(11.7 YTN). 그동안 해상을 봉쇄하고 수차례 선박을 격침하여 70여 명 사망(참고 1989에도 실권자 노리에가의 마약밀매를 명분으로 파나마 침공)
- 베네수엘라 야당 우익 지도자 코리나 마차도가 노벨평화상 수상. 마차도는 차베스 정부 시절 우익 쿠데타에 가담하면서 정치를 시작해, 2019년에는 쿠데타를 배후에서 지도한 인물로 지속적으로 자국에 외국 군대의 개입을 요구
- 라틴아메리카에서 미중의 제국주의적 패권 경쟁 가속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최대 직접 투자국은 미국이지만, 많은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수출국으로써 중국의 부상. 특히 2005-6년 미국이 이라크, 아프간 전쟁 수령에 빠진 사 이 중국의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대출 등 자본 투입 증가 및 무역 비중 증가함에 따라 '뒷마당'에 대한 통제권이 약화
- 최근 아르헨티나 대선에 개입했고, 11일 에콰도르 국민투표(외국 군사기지 재가동 관련)에도 영향을 주려고 함.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등 중도좌파 정부가 집권한 나라들도 마약과의 전쟁 대상으로 거론
- 자국내 대대적인 이주민 단속(베네수엘라 간단 소탕 구실도 포함)과 주요 도시에 군대를 투입하여 정국을 경색시킴으로써 대중운동을 탄압하는 한편 이주노동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 함.
- 트럼프는 조란 맘다니의 당선을 두고 "우리의 적들은 미국을 공산주의 쿠바, 사회주의 베네수엘라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11.6 조선일보)

○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경쟁

- 최근 미중 정상회담으로 한시적 타협이 이뤄짐(희토류-첨단기술 제품 수출통제 유예). 중국은 1기 트럼프 당시 무역전쟁 때에 비해서 더 단단하게 대응하고 있음
- 미국 국방부의 새 국가방위전략에 중국의 부상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국방비 지출과 더불어 전세계적 해외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고, 달러화를 통제함으로써 세계 금융계를 지배하고 있음
- 중동,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적 경쟁이 군사적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 트럼프가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 독일, 일본에 국방비 증가 압박하면서 이미 주요국의 군비 경쟁 가속화
- 트럼프가 전쟁부에 핵무기 시험 재개 명령을 내림(10.30). 푸틴도 자국 고위 당국자들에게 핵무기 실험 준비에 대한 재안서를 마련하라고 지시(11.6 한국일보)

○ 미국과의 제국주의적 동맹을 강화하는 이재명 정부

-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우라늄 농축과 핵잠수함 확보 시도. 동아시아에서의 군비 경쟁을 격화. 국방비 8.2% 인상
- 마스가 프로젝트: 미 해군력의 패권 강화에 일조
- 이재명 정부의 군비경쟁 가속화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가 아님. 핵잠은 보수 정당의 오랜 염원
- 대미 투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는 투자실패에 따른 손실이 발생될 경우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될 가능성

<수단 내전>

- 수단 반군인 신속지원군(RSF)이 서부 거점도시 알파시르를 최근 장악한 뒤 민간인 2000명을 학살했다는 주장이 제기
- 2023년 이후 2년 넘게 이어지는 이번 내전에서 다르푸르가 또다시 집단 학살의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고, 신속지원군은 현재 다르푸르 대부분과 남부 등 국토 3분의 1을 차지
- 30년 장기집권한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한 2018~19년 수단 혁명의 반혁명의 결과